

任彦國의 『治瘡方』 번역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¹

박상영¹ · 권오민¹ · 안상영¹ · 한창현¹ · 안상우¹ *

A Study on 『Chijongbang(治瘡方)』

Park Sang-young¹ · Kwon Oh-min¹ · Ahn Sang-young¹ ·

Han Chang-hyun¹ · Ahn Sang-woo¹ *

¹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is purposed to list the full translation of 『The secret method of tumor treatment (治瘡方)』 and to report the results to the academic world. The results are described as follows.

1. It seems to be difficult to accept the current 『The secret method of tumor treatment(治瘡秘方)』 as the original script of 『The method of tumor treatment(治瘡方)』. It seemed that the Imeonguk(任彦國)'s 'Important and Valuable Method(遺方)' at the era of Joseon was copied by handwriting among the private sector. 2. There are contents which are overlapped with 『Experience Method of Acupuncture(針灸經驗方)』. A further study is required whether the 『Experience Method of Acupuncture』 was added later on. Because resolution for the before and after of these two books may be acted as an important matter to conjecture the related schools with acupuncture science. 3. The Korean style unique method and terminology were introduced frequently in 『The method of tumor treatment』. Besides that, materials for the medicine were filled with the things of easy-to-contact in our daily life.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excellent materials to confirm the superiority of oriental medical science through the clinical experiments today.

Key Words : Chijongbang(治瘡方), Oriental medical science, Chijongbibang(治瘡秘方), Chimgugyeongheombang(針灸經驗方), Korean style

I. 序論

우리나라는 유난히 침술에 강한 나라였다. 특히 우리 전통의 침술은 오늘날 호침으로의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과적 기술을 아우르고 있었으

며 오늘날의 견지에서 과학성을 확보한 기술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통 침술은 그 학맥조차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것은 이 방면에 대한 문헌적인 고찰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선결 요건인 이 분야의 번역연구가 일천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있었던 몇몇 번역관련 성과¹⁾²⁾³⁾와 연구 성과⁴⁾⁵⁾

*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E-Mail : answer@kiom.re.kr Tel : 042)868-9442

접수일(2009년 10월 21일), 수정일(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20일)

6)7)8)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특히 최근에 연구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任彦國과 관련된 논의(9)10)를 진행하고자 한다. 임언국과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治腫秘方』 『治腫指南』에 대한 번역 및 연구가 이미 있었다. 그러나 필사본으로 남아있는 『治腫方』에 대해서는 의학 분야 이외에서의 연구가 있기는 하였으나(11) 번역과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임언국이 남겼다고 전하는 『治腫秘方』 『治腫方』의 비교 검토 및 허임의 『침구경험방』과의 비교검토를 위해 우선 『治腫方』(12) 전문을 번역 소개하여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II. 『治腫方』 全譯

부록 - 치종방 附治腫方

諸病之中, 惟腫難治, 人得此病, 其免幸矣. 任君彦國, 世居孝(13), 其母患腫, 百藥無效. 幸於靈隱寺遇老

- 1)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 소강. 2002.
- 2)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
- 3) 임언국. 국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 4) 조세형. 사암침법체계적연구. 서울. 성보사. 1986.
- 5) 서정철. 한국침구학의 사적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996. 13(1). pp.234-235.
- 6) 박세정. 안창범.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대한 고찰. 동의한의연. 1997. 1. pp.149-176.
- 7) 박문현. 허임 침구경험방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 8) 오준호, 차웅석, 김남일. 동의보감 침구권의 의사학적 고찰. 한국사학회지. 2004. 17(1). pp.119-141.
- 9) 서지연, 김남일. 임언국의 의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07. 20(2). pp.34-41.
- 10) 박상영, 안상우. 치종지남 연구.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2008. 32. pp.339-363.
- 11) 이규근. 조선중기 治腫術의 발달-治腫方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6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 12) 治腫方은 두 가지 판본이 존재한다. 1. 의회 소재 2.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본고에서는 1을 주자료로 삼고 2를 참고자료로 삼았다. 1에 대하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구축한 한의고전명저총서DB 원문 이미지와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http://jisik.kiom.re.kr)
- 13) 世居孝 : 치종비방에는 '世居井邑, 天性至孝.'로 되어 있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髮, 傳受針法, 以治母病. 其後自得其妙, 遇病輒施, 莫不立效, 不止治腫而已. 常過隣境, 有一人死而將斂, 遂針之, 有頃復蘇, 人以此益奇之. 朝廷聞之, 驛召于京, 有司供廩, 居數歲, 全活者幾萬餘人矣. 自上特賜衣服, 超授禮賓主簿(14). 聖眷方隆, 不幸而逝, 惜哉! 察病於未發之前, 回生於已死之後, 雖謂之扁鵲無讓, 世以未傳其妙爲恨. 余於巡過, 亡此方一出, 世之學者(15), 亦可以因此方求其妙, 獨恨諸治病方未盡載也. 遂囑錦山郡守李君億祥錄諸梓以廣其傳, 庶使人人得免夭札, 而同躋仁壽之域耳.

嘉靖三十八年己未正月安璋序

온갖 병 가운데 유독 종기(腫氣)가 치료하기 어려우니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살아남는 것만도 다행이다. 임언국(任彦國)은 대대로 정읍(井邑)에 살았는데,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의 어머니가 종기를 앓았는데 온갖 약이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도 영은사(靈隱寺)에서 어떤 늙은 중을 만나 침법을 전수받아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였다. 그 후에 스스로 그 묘법을 터득하여 병자를 만나면 곧 시술하여 즉시 낫지 않는 경우가 없었으니 다만 종기를 치료할 뿐만이 아니었다. 어느날 인근 지역을 지날 때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막 염(殮)을 하고 빈소를 차리려 하였는데 마침내 침을 놓자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나니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더욱 대단하게 여겼다. 조정에서 이 사실을 듣고 역마를 이용하여 서둘러 서울로 불러들여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주니 몇 년 간 살려낸 자가 수만 여명이었다. 임금께서 특별히 의복을 하사하고 등급을 뛰어넘어 예빈시주부(禮賓寺主簿)에 제수하셨다. 임금님의 총애가 한참 두터웠는데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으니, 애석하구나! 병이 발발하기 이전에 병을 살펴 치료하였고 이미 죽은 이후에 소생시켰으니, 편작(扁鵲)과 같다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으니 세상에 그 묘법이 전하지 않는 것이 한스럽다. 내가 올봄에 그곳을 순행차 들렀었는데, 없어졌던 이 처방이 일단 나왔으니 세상의 학자들이 또한 이 비방을 토대로 그 묘법을

14) 禮賓主簿 : 치종비방에는 '禮賓寺主簿'로 되어 있다.

15) 余於巡過, 亡此方一出, 世之學者 : 치종비방에는 '余於今春巡過井邑, 求得遺方, 乃其所撰治腫法也. 人雖亡, 此方一出'로 되어 있다.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모든 병에 대한 치료법이 다 실리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 마침내 금산 군수(錦山郡守)인 이억상(李億祥)에게 부탁하여 판각하게 해서 널리 유포하니, 어떤 사람이든 병에 걸려 비명횡사하는 것을 피하여 장수를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가정 38년(1559, 명종 14년) 정월 안위(安瑋)가 서문을 쓰다.

치종방 治腫方

任主簿彦國遺方

주부(主簿) 임언국(任彦國)이 전한 처방이다.

古人云, 十三疔, 或十六疔, 或三十六疔之說, 紛紜不定, 辨之甚難, 治之莫的, 故余¹⁶⁾輒拈出大者, 而名之曰五疔, 一曰火疔, 二曰石疔, 三曰水疔, 四曰麻疔, 五曰縷疔. 凡五疔, 風冷撲體, 感傷心臟, 轉爲客氣, 流行四肢, 礙而爲滯, 則便成腫毒. 或發於手足, 有緩有急, 而最急者, 火疔也. 一日之內, 刺針用藥, 則立見其效. 若不急治, 而至於三日之外, 則必至難救. 最緩者, 縷疔, 把腫吟痛積年彌留者有之, 漸移于皮肉空處, 皆得結核, 終爲潰破, 則肥膚之痛, 雖不如他腫而必死矣. 宜用針而決出惡血, 治藥而消去毒氣, 然後可得痊活. 故所以治療之方, 各錄于五疔之下.

옛사람들이 13정(疔), 16정 혹은 36정의 설을 말하였으나, 혼란스러워 변별하기가 무척 어렵고 치료에 딱 들어맞지 않았다. 때문에 나는 대강을 뽑아내어 5정이라 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화정(火疔)’이요, 둘째는 ‘석정(石疔)’이요, 셋째는 ‘수정(水疔)’이요, 넷째는 ‘마정(麻疔)’이요, 다섯째는 ‘누정(縷疔)’이다. 무릇 5정은 풍랭(風冷)에 신체를 꺾박하고 심장(心臟)을 상하게 한 뒤 객기(客氣)가 되어, 사지를 흘러 다니다가 막히고 체하게 되어 곧 종독(腫毒)이 된 것이다. 혹 손이나 발에서 생기며 서서히 진행되는 것과 급히 진행되는 것이 있다. 가장 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화정이니, 1일 안에 침을 놓고 약을 쓴다면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만

약 급히 치료하지 않아 3일 이상을 지나게 되면 반드시 구제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것은 누정이니, 종기를 앓는 채로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몇 년 간이나 낫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점점 피부와 살의 틈으로 옮겨가 모두 멍울이 되고 마침내 터지게 되면, 기부(肌膚)의 통증이 다른 종기보다는 못하지만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침으로 터뜨려 나쁜 피를 뽑아내고 약으로 치료하여 독기를 제거한 이후에야 낫게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치료하는 방법을 각각 5정 아래에 기록하기로 한다.

1. 화정 火疔

其色赤黑, 氣候甚熱. 發于頭, 則當處及百會·尺澤, 針刺出血, 後鹽湯水常沈注, 而間歇時及臥寢時, 則當處毛髮削, 後付土卵膏而吸泄惡毒. 發于面, 則當處及百會·尺澤¹⁷⁾, 卽用針泄毒, 而鹽湯水常注于腫處, 俾消熱後, 又付土卵膏, 則必差. 發于手足, 針藥之法如右, 但沈引鹽湯, 則尤妙. 若不能治而血氣流注, 客邪內攻, 心神煩悶, 則千金漏蘆湯和蟾灰, 日三服下, 重則鹽湯沐浴, 神效.

그 빛깔이 검붉고 심한 열이 난다. 머리에 생겼을 경우에는 화정이 난 부위 및 백회혈(百會)·척택혈(尺澤)에 침을 놓아 피를 뽑은 후에 항상 끓인 소금물에 담그고 이따금씩, 그리고 잠자는 때에 화정이 난 부위의 머리카락을 삭발한 후 토란고(土卵膏)를 붙여 악독(惡毒)을 빨아낸다. 얼굴에 생겼을 경우에는 화정이 난 부위 및 바로 위의 발제·백회혈·척택혈에 침을 놓아 독이 흘러나오게 한 뒤, 끓인 소금물을 늘 종기가 난 곳에 부어주어 열을 가시게 하고, 또 그 토란고를 붙이면 반드시 차도가 있다. 손발에 생겼을 경우에는 침을 놓고 약을 쓰는 방법을 위와 같이 하되, 다만 끓인 소금물에 담가서 독기를 빨아내면 더욱 효과가 좋다. 만약 치료가 되지 않아 혈기(血氣)가 흘러들어 객사(客邪)가 속으로 침입해 가슴이 답답할 경우에는 천금누로탕(千金漏

16) 余 : 치종비방에는 ‘臣’으로 되어 있다.

17) 當處及百會·尺澤 : 치종비방에는 ‘當處及直上髮際百會·尺澤’으로 되어 있다.

蘆湯)을 두꺼비를 태운 재[蟾灰]와 섞어서 하루에 3차례 복용하고, 위중할 경우에는 끓인 소금물로 목욕을 하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2. 석정 石疔

其色外白內赤. 過一日則成塊, 或如大豆, 或如鳥卵. 按之甚痛, 堅¹⁸⁾如石, 針難得入. 故腫邊生肌之間刺之, 入向腫內, 削其毒根, 則立差. 其餘治法, 與火疔同.

그 빛깔이 바깥쪽은 희고 안쪽은 붉다. 하루를 지나면 덩어리가 되는데 혹 콩알만 하기도 하고 새알만 하기도 하다. 눌러보면 몹시 아프고 돌처럼 딱딱하여 침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때문에 종기 주변의 생살 사이를 찢어서 종기 안쪽을 향해 집어넣어 독의 근원을 잘라내면 바로 차도가 있다. 나머지 치법(治法)은 화정(火疔)의 치법과 동일하다.

3. 수정 水疔

其色純紅, 好發於手足, 針鋒皆向下刺之. 若流上於頭面四肢, 則如蝨之咬, 如蟻之行. 按之即移, 視之難審, 而毒氣在處, 則皮色必變, 毛髮如豎, 宜先刺其通行經絡, 次刺其成腫當處, 則立差. 用藥治法, 與火疔同.

그 빛깔이 새빨강다. 손발에 잘 생긴다. 침끝을 모두 아래로 향하게 하여 침을 놓는다. 상부로 흘러들어 머리·얼굴·사지로 퍼지면 이가 깨문 것처럼 아프고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가렵다. 눌러보면 종치가 옮겨가서 살펴보아도 잘 살피기가 힘들고, 독기(毒氣)가 도처에 있어서 피부색이 반드시 변하고 털이 곤두선다. 우선 종치와 통하는 경락에 침을 놓고 다음으로 종기가 생긴 곳에 침을 놓아야만 바로 차도가 있다. 약을 쓰는 방법과 목욕하는 방법은 화정(火疔)의 그것과 동일하다.

4. 마정 麻疔

18) 堅 : 치중비방에는 ‘堅韌’으로 되어 있다.

其色微白微赤, 癢而不痛, 如麻之結物也, 如布之襯身也. 延于四體, 漸成浮大指如股脚, 脚浮一寸, 頭浮一寸, 則死矣. 針藥浴法, 如其火疔, 然後可痊.

그 빛깔이 약간은 허영고 약간은 불그스름하다. 가렵지만 아프지는 않으며, 삼으로 물건을 묶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베로 몸을 감싼 것 같기도 하다. 사지에 퍼지면서 점차 부어올라 엄지발가락·넓적다리·정강이까지 붓는데, 넓적다리가 1치 붓거나 머리가 1치 부으면 죽는다. 침 놓는 방법과 약 쓰는 방법, 목욕하는 방법을 화정(火疔)의 그것과 같이 해 준 이후에야 낫게 할 수 있다.

5. 누정 縷疔

其色不白不赤, 毒氣煽發, 漸作其縷, 延¹⁹⁾于骨肉之間, 成塊于皮膚之隙, 以先塊爲基, 而散縷四方, 如縷之結于經絡也. 按之則所至處皆拘攣, 日久月深, 至於潰破, 則死矣. 雖針其四方, 縷少歇而還痛, 終難救矣. 必去其塊, 削去其根, 則永得差矣. 古之無縷疔之說者, 不能形容之妙故也. 余²⁰⁾自辛卯年以後, 治療之人, 多至屢萬, 而縷疔之人, 一年內, 或一二見之. 診審其所患之腫, 則正如縷之穿物而拘攣. 故余心得其所以然, 而指其名曰縷疔.

그 빛깔이 허영지도 붉지도 않다. 독기가 활짝 피어올라 점점 실처럼 연결되어 뼈와 살 사이로 퍼져나가 피부의 틈에 덩어리를 짓는데, 먼저 생긴 덩어리로 터전을 삼고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연결되어 마치 실가닥이 경락에 묶여있는 것 같다. 눌러보면 실처럼 이어진 곳은 모두 경련이 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어 터지게 되면 죽는다. 비록 실처럼 이어진 사방에 침을 놓더라도 맺히거나 연결된 곳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아파와서 끝내 구하기 어렵다. 반드시 그 덩어리를 없애고 뿌리를 잘라내어야만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옛날 누정(縷疔)에 대한 설이 없었던 것은 그것을 형용할 재주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신묘년(1531)²¹⁾ 이후로 치료한 사람

19) 延 : 치중비방에는 ‘穿延’으로 되어 있다.

20) 余 : 치중비방에는 ‘臣’으로 되어 있다.

이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지만 누정 환자는 1년에
혹 1~2명 볼 수 있었는데, 앉고 있는 종기를 자세
히 살펴보니 정녕 실가닥이 물건을 뚫은 것 같고
경련이 일었다.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그 이치를 깨
달아 그 이름을 지목하여 ‘누정(纒疔)’이라고 하였
다.

6. 끓인 소금물에 담가 독기를 빼는 방법 鹽湯浸引法

水一鉢，鹽一合，至於一盆則二升，二盆則四升，同
湯二三沸，候水氣溫平。臂則小槽，脚則用長缸，手足
則各適其器，而浸引矣。但頭後，用大所羅，或大鉢盤，
盛湯水，臥枕²²⁾其當處。頭前則大所羅，置小枕於其中
仰臥，令傍人以小器盛水，長注腫上。面中則以油紙，
作揮項而下垂，以遮其胸腹之衣，盛湯水于東海，置于
油紙之下，又用小器汲東海之水，注之不絕，則水下紙
上，而還入于東海中，良久乃止。

물 1바리에 소금 1홉의 비율로 하므로, 물이 1
동이인 경우에는 소금을 2되로 하고, 물이 2동이인
경우에는 소금을 4되로 하여, 물에 소금을 넣고
2~3번 끓여오를 때까지 끓인 후 물이 따뜻하게 식
을 때까지 기다린다. 팔뚝에 종기가 났을 경우에는
작은 구유를 쓰고 다리에 났을 경우에는 긴 항아리
를 쓰고 손이나 발에 났을 경우에는 손발에 따라
각각 적합한 용기에 담가서 독기를 빼다. 다만 머리
뒤쪽에 종기가 났을 경우에는 큰 쟁반이나 큰 소래
기[所羅, 굽 없는 접시 모양으로 된 넓은 질그릇]에
끓인 소금물을 담은 후 누워서 종기가 난 곳을 담
근다. 머리 앞쪽에 종기가 났을 경우에는 큰 소래기
가운데에 작은 베개를 두고 위를 보고 누우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작은 그릇에 끓인 소금물을 담아서 종
기 위에 계속해서 부어준다. 얼굴에 종기가 났을 경
우에는 기름종이로 휘항(揮項, 우리나라 고유의 披
肩物)²³⁾을 만들어서 아래로 드리워지게 하여 옷의

21) 신묘년(1531) : 치종지남에는 신해년(1551)으로 되어 있
다.

22) 枕 : 치종비방에는 ‘沈’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이를 따른
다.

가슴과 배 부분까지 가린 후 끓인 물을 동이[東
海²⁴⁾]에 담아 기름종이 아래에 두고 또 작은 그릇
으로 동이의 물을 떠다가 끊임없이 부어주면 물이
종이 위에서 흘러내려가 동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
게 되는데, 이렇게 한참 동안 하다가 그만둔다.

7. 토란고 土卵膏

一名母立，本草名其土芋者也。爛磨取汁，攤紙上，
付當處數易。【搗則無效】其氣寒而嚴，故能制其毒，
能消其熱，而不復熾發。余²⁵⁾去壬辰年，得風腫，六年
不得差，得此以後永差，每施於人，而必得其效矣。

일명 모립(母立)이니, 『본초』에서 토우(土芋)라
고 한 것이다. 문드러지게 갈아서 즙을 내어 종이
위에 발라 종기가 난 곳에 붙이되 자주 바꾸어준다.
【짙은 것은 효과가 없다.】 그 기운이 차면서 강렬
하기 때문에 독기를 제어하고 열을 없애어서 다시
열이 피어오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
난 임진년(1532)에 풍종(風腫)²⁶⁾에 걸려 6년 동안
차도가 없더니 이 방법을 쓴 후에 깨끗이 나왔으며,
매번 사람들에게 시술할 때마다 반드시 효과를 보
았다.

8. 천금누로탕 - 종기를 치료 하는 신기한 약이다 千金漏蘆 湯²⁷⁾ - 治瘰之神藥也

枳角去殼夫炒 黃芩 升麻去朽 麻黃去節 赤芍藥 生

23) 휘항(揮項) : 국역성호사설 권6 피견(披肩) “또 속명 휘항
(揮項)이란 것이 있는데, 큰 것은 어깨와 등도 다 덮을 수
있고, 작은 것은 다만 뒤통수와 목만을 두르게 되었다. 같
은 비단으로 만들고 안과 선은 모두 털을 뺐으며, 앞으로
늘어진 양쪽 귀는 뒤로 젖혀서 뒤통수에다 마주 매게 되었
다. 이는 이엄이란 제도와 흡사하니, 대개 맨 처음에는 갈
던 것이 차츰 전해 오면서 달라지게 된 것인 듯하다.”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24) 東海 : ‘동이’의 옛말인 ‘동희’의 한자식 표기.

25) 余 : 치종비방에는 ‘臣’으로 되어 있다.

26) 풍종(風腫) : 갑자기 붓는 병증. 諸病源候論. 風腫候.

27) 千金漏蘆湯 : 임언국이 제시한 천금누로탕에는 ‘누로(漏
蘆, 뽕꼭채)’가 빠져 있다.

甘草 白朮 白芨 各四分²⁸⁾, 大黃一錢三分, 黃柏 黃連 連翹 知母 荊芥 各五分.

지각(껍질을 제거하고 밀기울에 부는다) 황금 승마(검은 속을 제거한다) 마황(마디를 버린 것) 적작약 감초(날 것을 쓴다) 백렴 백급 각 4푼, 대황 1돈 3푼, 황백 황련 연교 지모 형개각 5푼.

9. 두꺼비를 태운 재 蟾灰

去其內腸, 兩夫瓦相合而以索結之, 置蟾于中. 又以泥防頭²⁹⁾及隙處, 安于火中, 久而出之. 研作細末, 一服一錢, 鎮守其心神, 能拒其毒氣.

두꺼비의 내장을 제거한다. 수키와 2개를 서로 포개어 새끼줄로 결박한 뒤 두꺼비를 그 속에 둔다. 그리고 진흙으로 양쪽 입구와 틈을 막은 다음 타오르는 불 속에 넣고서 오래 있다가 꺼낸다. 이것을 곱게 갈아서 1회에 1돈씩 복용하면 심신(心神)을 진정시키고 독기(毒氣)를 막을 수 있다.

10. 끓인 소금물로 목욕하는 방법 鹽湯沐浴法

蛇莓草根葉并採, 瀝洗. 鹽³⁰⁾一斗, 水一盆半, 同煎至一盆, 去滓待冷. 復以蛇莓草一斗, 蒼耳一斗塵剉【가로가치벼흐단말】, 桑灰盛焰一斗許, 水九盆, 同湯六七沸, 去滓. 鹽三斗入袋, 沈盡消, 後去袋, 候水氣溫熱適中, 入坐湯子, 傍人以器盛湯水, 注于頭及肩上. 良久, 發汗後, 出外平坐, 傍人又以前煮蛇莓湯冷水, 先注于頭面, 次注四體, 無不至處. 又以手磨擦之【부벼어만저】防汗孔. 一日二浴, 氣弱則一日一浴. 以十浴爲限, 則必四五浴. 得驗則止. 每浴皆用鹽湯蛇莓冷水.

뱀딸기의 뿌리와 잎 채로 따서 깨끗이 씻는다. 소금 1말을 물 1동이 반에 넣어서 1동이 될 때까지

28) 分: 이 항목의 분자가 치중비방에는 모두 '目'(눈금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

29) 頭: 치중비방에는 '頭孔'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30) 鹽: 치중비방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 함께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린다. 다시 뱀딸기 1말, 도꼬마리(진좌한다)

【가루같이 썬다는 말이다】 1말, 뽕나무 재(강한 불로 태운다) 1말 가량을 물 9동에 넣고 6~7차례 끓어오를 때까지 함께 끓인 후 찌꺼기를 제거한다. 소금 3말을 포대에 넣어 가라앉혀서 소금을 다 녹인 후에 포대를 치우고 물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물의 온도가 적당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탕 속에 들어가서 앉고 곁에 있는 사람은 그릇에 따뜻한 물을 담아 머리와 어깨 위로 부어준다. 한참 있다가 땀이 난 뒤에는 밖으로 나와 반듯이 앉고 곁에 있는 사람이 앞에서 설명한 뱀딸기를 달여서 식힌 물을 우선 머리와 얼굴에 부어주고 다음은 사지와 온 몸에 부어준다. 그리고 손으로 문질러서【부벼어만저】 땀구멍을 막아준다. 이런 식으로 하루 2차례 목욕하되 기(氣)가 약한 사람은 하루에 1차례 목욕한다. 10차례를 한계로 삼지만 반드시 4~5차례는 목욕을 해야 효험을 볼 수 있다. 효험을 보았으면 목욕을 그친다. 목욕을 할 때마다 뱀딸기를 달여서 식힌 물을 쓴다.

11. 배종 背腫

凡痛痒瘡瘍, 皆屬心火, 故灸騎竹馬穴, 則心脈流通, 自至安愈.【三月前可灸】

凡腫脈, 宜滑數, 緊急最危者, 蝦遊雀喙脈也.

初發時, 付土卵膏【見上】, 針尺澤穴則必消. 二三日, 形如太, 則以針刺入, 削其根, 而土卵之付, 尺澤之針, 亦如左³¹⁾, 則可得消矣. 四五日, 大如梨, 則用針決破, 破之時, 審其淺深, 定其四方, 先破其長而至于坤, 次破其乾而至于巽, 則針道如十字形, 相斜而直, 惡血易流矣. 毒氣在淺, 則針亦淺, 在深則針亦深. 操針之際, 敬慎無忽, 則患人不傷, 而效必速矣. 針孔血止後, 付丹池三四度, 則惡血盡出, 而痛亦止矣. 不計晝夜, 洗引鹽湯, 出歇時, 則以獾肉實其中, 以生眞油塗其邊, 又頻服漏蘆湯和蟾灰, 則得差於十日之內矣. 但內膿外硬, 瘡毒成根, 痛之不堪, 食之不下, 則日日

31) 左: '右'의 오기인 듯하다.

針于四偏，出血斷根，則漸得永差矣。若初不用針藥，自至於內外俱膿，痛勢自歇，則治之如運掌之易也。然患人多死於成腫³²⁾時，而不死於已濃³³⁾之後，故世之治腫者，不治其發初，而好治濃³⁴⁾後者，不能理會而心得也。治之於初發者，如滅火於焰焰者也，徒費一手之舉也，千百之中無一人致傷焉。治於痛極者，如盡於燎原者也，雖有爛額之勞，其得功幸矣。欲濃³⁵⁾未濃³⁶⁾之間，十中之得生者，僅有一二人焉。況焦火炎上，心神煩熱，發爲臃腫，則可以不治其初以得濃³⁷⁾哉？且心根繫於五臟³⁸⁾內，則去皮上纔一寸許耳。毒氣之易入於心者，莫如此症也。一心受毒，五臟煩懣，則雖針藥之具，未如之何也。宜謹其始而權其利害，治其初，絕其毒氣，則患人皆得活矣。

아프고 가려운 창양은 모두 심화(心火)에 속하므로 기증마혈에 뜬을 뜨면 심맥이 소통되어 저절로 편안해진다. 【3월 이전에 뜬을 뜰 수 있다.】

종기에는 맥이 활삭(滑數)해야 하며, 긴급(緊急)한 것이 가장 위험한데, 두꺼비가 돌아다니고 참새가 쪼는 맥이다.

처음 생겼을 때에 토란고 【앞에 나온다】를 붙이고 척택혈(尺澤穴)에 침을 놓으면 반드시 사라진다. 2~3일이 경과하여 모양이 콩알과 같은 경우에는 침을 찔러 넣어 그 뿌리를 잘라낸 후 토란고를 붙이고 척택혈에 침 놓기를 위와 같이 하면 없앨 수 있다. 4~5일이 경과하여 크기가 배만한 경우에는 침으로 찢되, 찢을 때에 깊이를 잘 살펴 네 방위를 정하여 우선 간방(良方, 右上)을 찢어 곤방(坤方, 左下)에 이르게 하고 다음으로 건방(乾方, 左上)을 찢어 손방(巽方, 右下)에 이르게 하면, 침이 지나간 길이 ‘十[열 십]’자 형태와 같아서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여 나쁜 피가 쉽게 흘러나올 것이다. 독기(毒氣)가 얇은 곳에 있으면 침도 얇게 다루고 독기가 깊은 곳에 있으면 침도 깊게 다룬다. 침을 다룰 때에 공경하고 삼가여 경홀히 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상하지 않고 효험은 반드시 빠를 것이다. 침구멍에서 피가 그친 후에는 단지(丹池)³⁸⁾를 3~4번 붙이면 나쁜 피가 모두 나오고 통증 또한 그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끓인 소금물에 담가 독기를 빼내고, 독기가 다 나왔을 때에는 족제비 고기로 침구멍 속을 채워주고 생참기름을 그 주변에 바른다. 그리고 천금누로탕(千金漏蘆湯)에 두꺼비 태운 재[蟾灰]를 타서 자주 복용하면 10일 이내에 차도를 볼 수 있다. 다만 안쪽은 굵고 바깥쪽은 탄탄하며 종독(腫毒)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아파서 참을 수 없고 음식도 삼킬 수 없을 것이니, 매일 종기의 네 귀퉁이에 침을 놓아 피를 뽑고 뿌리를 잘라내면 차츰차츰 완치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침과 약을 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안팎이 모두 굵고 통증이 저절로 가시는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손바닥에 올려놓고 굴리듯 쉽다. 하지만 환자들 대부분은 막 부었을 때에 죽고 이미 굵아버린 후에는 죽지 않는다. 때문에 세상의 종기를 치료하는 자 가운데 그것이 생긴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굵아버린 이후에 치료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치를 깨달아 심득(心得)하지 못한 것이다. 처음 생겼을 때에 치료하는 것은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불을 끄는 것과 같아서 단지 한쪽 손을 드는 수고를 하지만 천 명이나 백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없다. 통증이 극심할 때 치료하는 것은 들판을 태우는 불을 끄려고 힘을 다하는 것과 같아서 이마를 불에 대는 수고를 하더라도 효험을 얻는 것은 요행이다. 굵을 듯 말 듯 할 때에도 열 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겨우 1~2명에 불과한데 하물며 세찬 불이 위로 타올라 심신(心神)에 열이 맺혀 저종(疽腫)이 났을 경우에는 어찌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서 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게다가 심근(心根)은 제5추 안에 매여 있으니 피부와의 거리가 겨우 1치 남짓에 불과하다. 독기(毒氣)가 심(心)에 쉽게 침입하는 것이 이 증상만한 경우가 없는 것이다. 만약 심(心)이 독을 받게 되면 오장(五臟)이 괴롭게 되어 비록 침과 약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어찌해볼 수가 없다. 마땅히 그 처음에 삼가고 이해를 따져보아 초기에 치료하

32) 腫 : 치종비방에는 ‘濃’으로 되어 있다.

33) 濃 : ‘膿’의 오기이다.

34) 濃 : 위와 같음.

35) 濃 : 위와 같음.

36) 濃 : 위와 같음.

37) 濃 : 위와 같음.

38) 단지(丹池) : 治腫指南에는 ‘丹知’로 되어 있다.

여 독기(毒氣)를 끊는다면 환자는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이다.

1) 정종이 얼굴에 생긴 경우 疔腫生面

疔腫生面上及口角, 針合谷·下三里·神門, 灸亦良. ○生手上, 曲池穴三七壯. ○外以針刺四畔, 令出惡血, 蒼耳莖根, 鹽同湯沈洗, 後馬齒莧爛搗, 和鹽付之. 服漏蘆湯, 加青皮 生乾【一方或無乾字】地黃 忍冬草.

정종이 얼굴 및 입가에 생겼을 때는 합곡·하삼리·신문혈에 침을 놓거나, 뜸을 떠도 좋다. ○손에 생겼을 때는 곡지혈에 뜸을 21장 뜬다. ○겉부분은 침을 4분의 1 깊이로 찔러 악혈을 빼낸 다음 창이의 뿌리와 줄기를 소금과 함께 물에 달여 씻고, 마치혈을 질게 찌어 소금에 개어 붙인다. 누로탕에 정피 생진지황【어떤 처방에는 건(乾)자가 없다.】인동초를 더하여 복용한다.

2) 육독 肉毒

肉毒, 生鷄子黃牛黃, 發熱則至寶丹.

육독에는 생계란 노른자와 우황을 쓰고, 열이 날 때는 지보단을 쓴다.

3) 응저의 종독 癰疽毒腫

凡癰疽毒腫, 初出三日前, 急灸其背三七壯, 自安. 若過三日, 則灸騎竹馬穴各七壯, 神效. 又初出時, 用手第四指納口, 浸津涎洽, 塗腫上, 晝夜不掇, 使不乾. 不過四五日, 自安. 方藥無逾於此也.

응저의 종독이 처음 나와서 사흘이 되기 전에는 빨리 끝부분에 뜸을 21장 뜨면 저절로 안정된다. 사흘이 지났을 때는 기죽마혈에 뜸을 각각 7장씩 뜨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또한 처음 발생하였을 때 네 번째 손가락을 입 속에 넣고 침을 충분히 묻혀 종기에 바르는데, 밤낮 가리지 말고 마르지 않도록 한다. 불과 4~5일만에 저절로 안정된다. 처방약 중에 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4) 부골저 附骨疽

○附骨疽, 灸三白穴, 隨年壯, 立差. 【三白穴在間

使後一寸, 左右凡四穴.】

○부골저에는 삼백혈에 뜸을 나이수에 따라 뜨면 바로 낫는다. 【삼백혈은 간사혈 1촌 뒤에 있는데, 좌우 합하여 4혈이다.】

5) 피풍창 皮風瘡

皮風瘡, 灸曲池二百壯, 神門·合谷三七壯.

피풍창에는 곡지혈에 뜸을 200장 뜨고, 신문·합곡혈에 뜸을 21장 뜬다.

6) 연주창 聯珠瘡

聯珠瘡, 百勞三七壯至百壯, 肘尖百壯. 又初出核, 以針貫刺核中, 石雄黃末, 和熟艾作炷, 灸核上, 針穴三七壯, 諸核從此盡消矣.

연주창에는 백로혈에 뜸을 21장~100장 뜨고, 팔꿈치 끝부분에 100장 뜬다. 또한 멍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침으로 멍울을 찌르고, 석옹황가루와 오래 묵은 썩을 섞어 뜸봉을 만들어 멍울에 놓고 뜸을 뜨는데 침으로 찌렀던 구멍에 뜸을 21장 뜨면 여러 가지 멍울이 이 때부터 다 사라진다.

12. 치종기첩 治腫奇捷

1) 응저 癰疽

癰者陽, 滯於陰爲腫, 有瘡皮肉光澤者, 易治. 疽者陰, 滯於陽爲腫, 無瘡皮肉不澤, 內暈廣大, 欲知疽口, 以濕紙付貼, 先乾處, 是疽口也.

응(癰)은 양이고 음에서 막혀 종기가 되며, 빨과 껍질이 있고 살이 반질반질하며, 치료하기 쉽다. 저(疽)는 음이고 양에서 막혀 종기가 되며, 빨과 껍질이 없고 살이 반질반질하지 않으며, 속에 무리가 넓게 퍼져있는데, 저의 입구를 알고자 하면 습지를 붙여 먼저 마르는 곳이 저의 입구이다.

2) 응저나 정절이 처음 나올 때 癰疽疔初出

癰疽疔癰之初出, 看其經絡部分, 各隨其經, 行針無間日. 如或間日行針, 則無效. 勿論擇日諸忌, 逐日行

針, 或一日再針, 以瀉其毒, 則不至十日, 自安. 若針間日, 或針五六度, 而病者爲苦, 半途而廢則死. 如或不死, 則腐惡肉生, 新肉延於屢月, 艱苦萬狀, 不如未危之前行針也. 急灸騎竹馬穴七壯, 無不神效.

용저나 정절의 초기에 경락을 부분부분 살펴서 각 경락을 따라 날마다 침을 놓는다. 이틀마다 침을 놓으면 효과가 없다. 날짜를 택하거나 금기를 막론하고 날마다 침을 놓거나, 하루 두 차례씩 침을 놓아 독을 빼내면 열흘이 되지 않아 저절로 안정된다. 이틀마다 침을 놓거나, 5~6번 정도 침을 놓고나서 환자가 고통스럽다고 하여 중간에 그만 두면 죽는다. 혹 죽지 않더라도 썩은 살이 나와서 새살이 몇 달동안 나오지 않아 온갖 고통으로 위협해지기 이전에 침을 놓는 것만 못하다. 빨리 기죽마혈에 뜬 7장 뜨면 신기한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없다.

3) 종기에 빨이 있는 경우 凡腫有竅

凡腫有竅者, 無竅者, 多發於四肢及耳下, 苦痛十餘日, 或十五日, 成膿, 然不可以一例論之. 大槩, 先以手指探按腫痕, 而當處堅固, 且有指痕成凹, 趁不起者, 不濃³⁹⁾也. 按指漸至濃⁴⁰⁾處, 忽覺指陷, 舉指復起, 正似執繭成凹, 捨則復起之狀, 是乃濃⁴¹⁾也. 如又皮囊盛水之狀, 按之則似有波搖之狀也.

종기에 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팔다리 및 귀 아래에 발생하고, 10일이나 15일 동안 고통스럽다가 고름이 되는데, 한 가지로만 논할 수 없다. 대개, 먼저 손으로 종기의 흔적을 눌러 해당 부위가 단단하면서 손가락으로 누른 곳이 움푹 들어갔다가 빨리 올라오지 않는 것은 고름이 잡히지 않은 것이다. 손가락으로 누른 곳이 점차 고름이 잡힌 곳에 이르러 갑자기 손가락이 함몰됨을 느끼고, 손가락을 들면 다시 올라오는 것이 누에고치를 잡은 것처럼 움푹 들어갔다가 손을 떼면 도로 올라오는 상태가 고름이 잡힌 것이다. 또한 피낭 속에 물이 가득한 상태로, 누르면 물결치는 듯한 상태이다.

39) 濃 : '膿'의 오기이다.
40) 濃 : 위와 같음.
41) 濃 : 위와 같음.

4) 머리털이 나는 부분과 입술에 종기가 생긴 경우 髮際唇腫

髮際唇腫面腫, 最是危症. 慎勿輕破, 隨其經絡, 逐日行針.

머리털이 나는 부분과 입술에 종기가 생긴 것과, 얼굴의 종기가 가장 위험한 증상이다. 삼가 경솔하게 터뜨리지 말고, 경락을 따라 날마다 침을 놓는다.

5) 용저의 중독이 발생한 초기 癰疽毒腫初

○癰疽毒腫, 初出三日前, 急灸其腫瘡三七壯, 自安. ○初發小如粟, 故人皆忽之, 發毒則必至死域, 急灸騎竹馬穴. 若未能針, 付自腐藥, 以待濃⁴²⁾潰, 兼用蟾膽五六介, 連食, 已潰未潰, 皆效. 凡腫濃⁴³⁾破後, 以粘飯付之, 則猶勝於榆皮也.

○용저의 중독이 처음 발생하여 3일 이전에는 빨리 종기의 빨에 뜬 21장 뜨면 저절로 안정된다. ○처음 발생하였을 때는 쯤쌀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소홀이 여기는데, 독이 발생하면 반드시 죽을 지경에 이르니, 빨리 기죽마혈에 뜬 7장을 뜨지 못하면 저절로 썩는 약을 붙여 고름이 터지기를 기다리면서, 두꺼비를 회로 5~6마리를 계속 먹으면 이미 터졌거나 터지지 않았거나 모두 효과가 있다. 고름이 터진 뒤에는 찹쌀밥을 붙이면 버드나무껍질보다 효과가 뛰어나다.

6) 배종 背腫

背腫, 逐日針經絡, 自安, 然未能善治, 則竟至熟腫成膿, 以大針決破裂盡, 赤暈之裔, 卽取大蟾六七介作膽, 用薑芥汁, 連食, 惡肉盡消, 新肉自生, 可以起死回生. 且腫上狀如粟米者, 亂出, 自成穿孔, 以指探按, 則自其各孔濃⁴⁴⁾汁現出, 按休濃⁴⁵⁾汁還入, 是謂熟

42) 濃 : 위와 같음.
43) 濃 : 위와 같음.
44) 濃 : 위와 같음.
45) 濃 : 위와 같음.

濃⁴⁶). 以大針裂破, 赤暈之裔, 以粘米飯貼之, 自差.

배중에는 경락을 따라 날마다 침을 놓으면 저절로 편안해지는데, 잘 치료하지 못하여 종기가 익어 고름이 잡히게 되면 큰 침으로 모두 터뜨리고, 붉은 무리가 지게 될 때 즉시 큰 두꺼비 6~7마리를 회를 떠서 생강즙으로 계속 먹으면 썩은 살이 다 사라지고 새살이 저절로 돌아 도로 살릴 수 있다. 또한 종기 위에 좁쌀 같은 것이 있으면 빼내기 어렵고, 저절로 구멍이 뚫렸을 때는 손가락으로 눌러 각 구멍마다 고름이 나오면 고름이 도로 들어가도록 누르는데, 이것이 익은 고름이다. 대침으로 터뜨리고, 붉은 무리가 질 때 찹쌀밥을 붙이면 저절로 낫는다.

13. 기죽마혈법 騎竹馬穴法

以直柎, 先量患人尺澤穴至中指端, 折斷. 令患人解衣露體, 騎坐直竹, 然後將其先量柎, 從脊立於坐竹之上, 柎端盡處脊上, 以墨點起. 更用禾稈, 量病人男女右, 中指中節爲一寸, 又加一寸, 合作二寸, 中摺墨記, 着於先點脊上橫布, 兩端盡處, 是灸穴, 各灸左右七壯止, 不可多灸. 以此法灸之, 則無不愈. 蓋此二穴, 心脈所過處.

곧은 싸리나무로 먼저 환자의 척택혈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까지 길이를 잰 다음 잘라낸다. 환자의 옷을 벗기고 곧은 대나무에 기마자세로 앉게 한 연후에 앞에서 길이를 잰 싸리나무를 환자의 척추에서부터 앉아있는 대나무까지 대서 척추의 싸리나무 끝부분에 먹으로 점을 찍는다. 다시 벼줄기로 환자의(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의 가운데 마디를 1촌으로 하고, 다시 1촌을 더하여 총 2촌을 잘라 벼줄기 가운데를 접고 먹으로 찍은 다음 앞서 척추부분에 찍었던 곳에 가로로 대는데, 양쪽 끝이 뜬을 뜬 혈자리이다. 좌우로 각각 7장씩 뜬을 뜨고 멈추는데, 뜬을 많이 뜨면 안된다. 이 방법으로 뜬을 뜨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 두 혈이 심맥(心脈)이 지나가는 곳이다.

46) 濃 : 위와 같음.

14. 여러가지 위험한 악증 諸危惡症

目直視, 摸衣, 撮空, 魚口氣喘, 命難全. 病人氣實, 實則易治, 虛則難治.

눈을 치켜뜨거나, 옷을 움켜쥐거나, 허공을 허우적거리거나, 물고기 입처럼 숨을 헐떡거리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환자의 기가 실하면 치료하기 쉽고, 허하면 치료하기 어렵다.

凡瘰不熱不痛, 不高不⁴⁷低陷, 破爛肉色紫黑, 爲內發毒, 肉先死, 必死之疾也.

종기가 뜨겁지도 아프지도 않고, 높지도 함몰되지도 않으며, 터뜨렸을 때 살 색이 검붉은 것은 속에 독이 발생한 것으로, 살이 먼저 썩으면 반드시 죽을 병이다.

目白睛黑, 眼胞約小, 一逆也. 納藥嘔吐, 二逆也. 腹痛渴甚, 三逆也. 肩項不便, 四逆也. 聲嘶色脫痢疾, 五逆也.

눈이 희고 눈동자가 검으며, 눈꺼풀이 작아진 것이 첫 번째 좋지 않은 증상이다. 약을 먹으면 토해내는 것이 두 번째 좋지 않은 증상이다. 배가 아프고 갈증이 심한 것이 세 번째 좋지 않은 증상이다. 어깨와 목이 불편한 것이 네 번째 좋지 않은 증상이다. 목소리가 쉬고 얼굴에 생기가 없으며 설사가 나는 것이 다섯 번째 좋지 않은 증상이다.

III. 考察

1. 판본 및 구성상의 제문제

『치중방』과 『치중비방』을 현재 남아있는 판본만을 비교해보면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문맥으로 보아 한 쪽만 맞는 경우가 상호간 나온다는 점에서이다. 그렇다면 필사본 『치중방』은 현행의 『치중

47) 不 : 원문에는 없으나 문맥을 살펴 삽입하였다.

비방』 이외의 다른 판본을 보고 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치종방』에는 『치종비방』에서 臣이라 되어 있는 1인칭 주어가 모두 余로 바뀌어 있다.⁴⁸⁾ 이것도 『치종비방』과는 다른 전승계통의 판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체제상에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번역된 전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그 목차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일련번호는 임의로 넣었다)

1. 화정 火疔
2. 석정 石疔
3. 수정 水疔
4. 마정 麻疔
5. 누정 纒疔
6. 끓인 소금물에 담가 독기를 빼는 방법 鹽湯浸引法
7. 토란고 土卵膏
8. 천금누로탕 - 종기를 치료하는 신기한 약이다 千金漏蘆湯 - 治瘡之神藥也
9. 두꺼비를 태운 재 蟾灰
10. 끓인 소금물로 목욕하는 방법 鹽湯沐浴法
11. 배종 背腫
 - 1) 정종이 얼굴에 생긴 경우 疔腫生面
 - 2) 육독 肉毒
 - 3) 용저의 종독 癰疽毒腫
 - 4) 부골저 附骨疽
 - 5) 피풍창 皮風瘡
 - 6) 연주창 聯珠瘡
12. 치종기첩 治腫奇捷
 - 1) 용저 癰疽
 - 2) 용저나 정절이 처음 나올 때 癰疽疔初出
 - 3) 종기에 빨이 있는 경우 凡腫有竅
 - 4) 머리털이 나는 부분과 입술에 종기가 생긴

48) 현행 치종비방의 원고는 임언국의 ‘遺方’으로 불리는데, 치종비방의 내용만을 살펴보자면 ‘유방’은 임금에게 보고한 일종의 보고서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바란다. 박상영, 이선아, 권오민, 안상우. 치종비방 연구. 한국한의학회지. 한국한의학회지. 2008. 04. pp.1-8.

경우 髮際唇腫

- 5) 용저의 종독이 발생한 초기 癰疽毒腫初
- 6) 배종 背腫
13. 기죽마혈법 騎竹馬穴法
14. 여러가지 위험한 악증 諸危惡症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1~11번까지는 『治腫秘方』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그 이후의 내용은 『침구경험방』과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치종비방』의 구성은 다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서문 이외의 그 목차를 적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화정 火疔
10. 끓인 소금물로 목욕하는 방법 鹽湯沐浴法
7. 토란 土卵
8. 천금누로탕 千金漏蘆湯
9. 두꺼비를 태운 재 蟾灰
6. 끓인 소금물에 담가 독기를 빼는 방법 鹽湯浸引法
2. 석정 石疔
3. 수정 水疔
4. 마정 麻疔
5. 누정 纒疔
11. 배종 背腫

‘화정’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옛사람들이 13정(疔), 16정 혹은 36정의 설을 말하였으나, 혼란스러워 변별하기가 무척 어렵고 치료에 딱 들어맞지 않았다. 때문에 나는 대강을 뽑아내어 5정이라 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화정(火疔)’이오, 둘째는 ‘석정(石疔)’이오, 셋째는 ‘수정(水疔)’이오, 넷째는 ‘마정(麻疔)’이오, 다섯째는 ‘누정(纒疔)’이다. …… 그 치료하는 방법을 각각 5정 아래에 기록하기로 한다.”라고 말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치종비방』의 구성보다는 『치종방』의 구성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치종비방』 맨 마지막에는 여러 병증 가운데 ‘배종’만 나와 있다. 이것도 매우 부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오히려 이후에 여러 병증과 그 치료법을 설

명한 『치중방』의 구성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배중에 대한 설명 아래 부분은 대부분 『침구경험방』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 『침구경험방』의 다른 부분이 『치중비방』이나 『치중지남』과 내용일치를 보이는 곳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침구경험방』의 내용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치중방』 필사본 뿐 아니라 『宜彙』 소재 『치중방』 또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책이 그 내용의 시작인지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

2. 한국적인 침구 자료

『치중방』에서 큰 특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적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疔을 5가지로 분류한 것부터, 각종 치료법 등이 중국의 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처방들이다. 또 약재로 썼던 것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당시 약재 수급의 어려움을 많은 부분 도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감하게 한국의 용어를 그대로 살려놓은 점은 오늘날의 번역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鉢[바리], 盆[동이], 小槽[작은 구유], 長缸[긴 항아리], 大鉢盤[큰 쟁반], 大所羅[큰 소래기], 揮項[휘항], 東海[동이] 등 일반의서에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의 어휘에 익숙한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용어들이 섞여 있어서 번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IV. 結論

『치중방』의 번역 및 고찰을 통해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현행 『치중비방』은 『치중방』의 원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선시대에 임언국의 ‘遺方’이 따로 필사되고 있었던 것 같다.
2. 『침구경험방』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훗날 『침구경험방』을 가미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두 서적의 선후문제 해결은 침구학 관련 학맥을 짚어내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3. 『치중방』에는 한국적인 독특한 치법과 한국적인 독특한 어휘들이 많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약재들도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했던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는 오늘날의 임상실험을 통해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서정철. 한국침구학의 사적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996. 13(1). pp.234-235.
2. 박세정, 안창범.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대한 고찰. 동의한의연. 1997. 1. pp.149-176.
3. 박문현. 허임 침구경험방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4. 오준호, 차웅석, 김남일. 동의보감 침구편의 의사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4. 17(1). pp.119-141.
5. 서지연, 김남일. 임언국의 의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07. 20(2). pp.34-41.
6. 박상영, 안상우. 치중지남 연구.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2008. 32. pp.339-363.
7. 이규근. 조선중기 治腫術의 발달-治腫方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6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8. 박상영, 이선아, 권오민, 안상우. 치중비방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8. 04. pp.1-8.

<단행본>

1.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 소강. 2002.
2.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
3. 임언국. 국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4. 조세형. 사암침법체계적연구. 서울. 정보사. 1986.